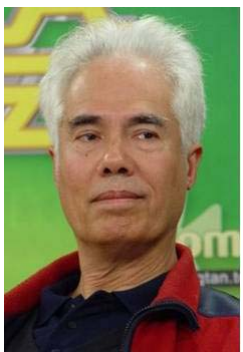


천재(天灾)인가? 인재(人灾)인가?

“3 개대표”의 허울을 쓴 중공은 이번 사천지진구제에서 얻은 성과만 과시하면서 자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미화하고 있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중공이라면 반드시 이번 사천지진재해는 피면할수 없는 순전한 자연재해인 것이 아니라 올림픽직전에 “안전국면”을 위해 고의적으로 지질예보를 발표하지 않아 조성된 “인재”라고 전사회에 공개하고 사과하여 민중들의 량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천지진발생예보를 하지 않은 사실을 덮어감추었으며 심지어 죄증을 없애버렸다. 왜냐 하면 일단 사실진상이 밝혀지면 중공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가 두려워서였다.

아래에 몇가지 “인재”를 조성한 중공의 “죄증”을 들겠다.



2008 년 4 월 30 일, 중국지구물리학회 산하의 사천지질예측위원회에서는 《1 년래 (2008 년 5 월부 터 2009 년 4 월까지) 사천, 감숙, 청해 교제 부근에 6~7 급지진이 일어날 것이니 반드시 류의해야 한다.》고 중국지질국에 보고했다. 또한 지질전문가들도 3 차

레나 《금년 5 월 8 일전후 10 일좌후에 사천, 감숙, 청해일대에 6 급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지구물리학회 천재예측전문위원회 고문 진일문(陈一文)선생 (윗사진)은 2008 년 5 월 3 일 친히 중국지질국에 문천지구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를 전했다고 실증하고 있다. 중공이 지진발생진상을 속이지 않고 제때에 지진예보를 했더라면 이번 막대한 재해를 피면할 수 있었다.

중공은 사천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진예보를 전사회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공기업, 국영기업에 긴급통지를 하여 생산을 정지시키고 피난하게 했으며 고급간부집의 아이가 있는 학교에다 통지하여 수업을 정지시키고 피난하게 했다. 2008 년 5 월 19 일, 중국광주 “난방공보(南方公报)”에 《3 분동안의 전화통화로 비통과 기쁨이 서로 갈라졌다.》는 뉴스가 실렸는데 순천 모 학교



실히 알수 있다.

금년 5 월 3 일에 사천아파주일대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군중들은 전화로 아파주방진감재국에 지진발생에 대해 자문했다. 아파주방진감재국에서는 이것은 “요언날조”라고 답변하고나서 마얼강현 방진감재국에 《“요언날조”의 근원을 밝히고 요언을 제거하라.》고 강요했다.

2008 년 5 월 9 일 사천성 중공정부의 인터넷에 《요언날조사건을 가라

앉히라.》는 공고를 발표했다. (윗사진) 중공은 사천지진예보를 하지 않은 목적이 탄로날가 이 뉴스를 삭제해버렸다. 이번 사천지진재해는 순전한 “천재”인 것이 아니라 중공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 중공은 모든 “인재”비극의 근원이며 력사의 “죄인”이다. 하늘의 뜻대로 중공의 멸망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중공의 거짓선전에 속지 말고 하루 속히 중공조직에서 탈당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뉴욕에서 대시위행진을 거행하여 파룬궁을 포함한 중공을 견책



거리에서 대시위행진을 거행하여 중공이 지진재해를 빌어 파룬궁을 포함한 죄행을 견책했다.

지난 5 월 25 일 점심 12 시, 2 천여명 파룬궁학원들과 정의인사들이 뉴욕 맨하탄 당인



인간신화

구사일생한 한 학급 중학생들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사천지진이 일어나 북천현 모 중학교 학사가 무너져 1천여명 학생들이 비참하게 생죽음당했다. 하지만 한 금년 졸업학급 학생 전부가 구사일생 했다는 희소식이 삽시간에 온마을에 퍼졌다.

체육교원 림선생이 운동장에서 이 학급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순식간에 학사가 무너지고 운동장 땅이 길이가 50여메터나 갈라터졌다. 한 학생이 갈라터진 땅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본 림선생은 재빨리 그를 붙잡아 땅위로 끌어올렸다. 운동장옆에 산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돌맹이들이 산위에서 와그르르 굴러내렸다. 이 위기일발의 시각에 림선생은 학생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파룬따파사부님께 《사부님, 우리들을 구해주십시오.》하고 청원했다. 이때 줄을 쳐마구 굴러내리던 돌맹이들이 명령이나 받은 것처럼 그자리에 문뜩 멈춰섰다.

림선생은 학생들에게 파룬궁진상과 위험한 재난이 올때 당, 단, 대에서 퇴출하면 생명을 확보할수 있다는 도리를 이야기 해 주었다.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된 전 학급 23명 학생들은 저마다 종이가 없어서 뜯어낸 담배곽에다 중공 각 조직의 단원, 소선대에서 퇴출하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



과학 탐구

최초 최면수술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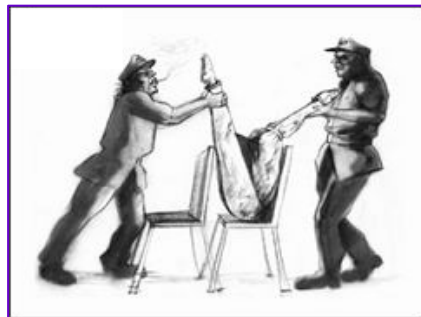
BBC 뉴스 4월 18일 소식에 의하면, 영국에서 온 최면사(催眠師) 아리쿠스 레카이는 워싱턴에서

일본동안 먼저 자신을 최면하여 휴면상태에서 마취를 하지 않고 83분동안 의사의 수술을 받아 자신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뼈를 잘라냈다. 의사가 수술할때 레카이의 의식은 아주 뚜렷하였는데 의사가 망치, 끌, 톱 등 공구로 수술하는 전 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조금도 아픈 감각이 없었다고 했다.



흑형을 당한 파룬궁학원 장정파

연길시파룬궁학원 장정파(张晶波)는 2008년 4월 14일 저녁 8시경에 연길시국보대대 중대장 송립해와 오씨 등 악경들에게 체포되어 갖은 흑형을 받았다.



악경들은 장정파를 등받이가 높은 철의자에 앉히고 끈으로 묶은 두 팔을 등받이위에 추켜놓고 족쇄를 채운 두 다리를 앞에 놓은 의자의 등받이위에 들어놓은후 오씨 악경은 뒤에서 두팔을 힘껏 위로 잡아당기고 키 작은 악경은 앞에서 두 다리를 힘껏 위로 떠밀었다. (윗그림) 장정파가 팔다리가 끊어지듯한 아픔에 기절해 쓰러지면 악경들은 잠깐 쉬었다가 장정파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또다시 흑형을 하곤 했다. 이렇게 8시간동안 흑형을 당한 장정파는 온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었다.

2008년 4월 15일 오전 10시경에 악경들은 장정파를 연길시구류소로 압송했다. 4흘째되는 날 단식항의를 하고 있는 장정파에게 강제로 이름 모를 주사를 놓았는데 절반쯤 놓았을 때 장정파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온몸이 저려났다. 급해맞은 악경들은 장정파를 연변병원 응급실에 보내어 검사하니 고혈압이 200이었고 저혈압이 130이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4월 21일에 거의 죽게 된 장정파를 장춘시흑취자녀자로교소에 보냈으나 로교소에서는 책임을 뒤집어 쓸가바 두려워 장정파를 되돌려보냈다.



연변박해소식

- 돈화시파룬궁학원 진숙근(陈淑芹)은 지난 5월 27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왕청현파룬궁학원 김정자(金贞子)는 지난 5월 28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왕청현파룬궁학원 신희숙(申姬淑)은 지난 5월 25일에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집수색을 당하여 DVD, 컴퓨터, 사부님법상 등을 빼앗겼다. 그는 지금 왕청현중안간수소에 갇혀있다.

왕청현국보대대 대대장 관청우: 13944770878
 왕청현국보대대 지도원 최웅식: 13904462303
 왕청현정법위원회 서기 김명: 13904462345
 왕청현중안간수소 사무실: 0433-8582199-804